

#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지

## 총평(?)

이번 시험은 제가 근 3년만에 현장응시를 해봤습니다. 다신 못 하겠어요 너무 떨리네요.. 수험생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아무튼 이번엔 현장응시를 해서 철저하게 현장에서 시험을 본 '수험생'의 관점으로 총평을 써보려 합니다.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지나친 태클은 자제해 주세요

화작 : 무난했습니다. 작년 6평은 확실히 어려운 논리를 사용한 문제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이번 화작 문제들은 지문도 항상 나오던 유형이고 답 고르기도 어렵지 않아 어이없는 실수만 아니었다면 충분히 다 맞으셨을 겁니다.

문법 : 작년 시험부터 평가원이 문법에서 힘을 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2017학년도에는 문법이 정말 어려웠는데, 작년 9평부터는 확연히 쉬워진 느낌입니다. 이번 시험도 사실 틀릴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안은/안긴 문장을 재밌게 활용한 12번과 오랜만에 등장한 사이시옷을 다룬 13번 정도에서 시간을 날렸을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냉정하게, 이 정도 난이도의 문법이라면 반드시 다 맞혀야 합니다. 수능 땀 이것보다는 어려울거예요.

비문학 : 작년 9평, 수능 모두 장지문이 킬러 지문으로 등장했는데, 이번 6평에선 장지문이 무난한 인문 지문으로 등장했습니다. 시간순 서술이라는 구조만 잡았다면 쉽게 답을 골랐을 겁니다. 그 외 법 지문도 전형적인 문제 해결형 구조였고, 키트와 관련된 지문은 정보량이 좀 많기는 했지만 역대급 지문에는 끼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문제가 쉽기도 했구요.

문학 : 현대시+수필 세트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특히 29번, 30번 문제의 선지를 판단하는게 조금 빠졌고 31번, 45번 문제에서 등장한 '상세한 내용 일치'가 등급컷을 꽤 낮췄던 것 같습니다. 서경별곡이 있는 고전시가 세트는 고전시가 독해에 대한 틀이 안 잡힌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난해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르게 느끼셨으면 그런거죠 뭐. 예상 1컷을 96점을 잡았었는데, 사과드립니다. 제가 미쳤나 봐요 하하. 앞으로는 컷 예상 안 해야지...

다만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능 땀 이것보다 문제가 어려워질 거고, 등급컷이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지금 등급에 절대 만족하지 마시고 120점을 목표로 공부하세요. 행여 쉽게 출제되더라도 그게 이득입니다.

오늘(6/8)부로 이 문제들은 시험문제가 아닌 '기출문제'가 되었습니다. 시험볼 때의 힘들었던 감정들은 잠시 내려두고, 냉철하게 기출문제를 분석해 봅시다. 그리고 그 분석에 이 해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출해설 프로젝트를 따라오신 분들은 훨씬 수월하게 읽히실 겁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비문학/문학만 쓸게요.

\* 시험지를 가지고 해설 강의 듣듯이 보시는게 편할 겁니다. \*

## [16~21]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西學)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시작부터 17세기라는 시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순 서술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체크해봅시다. 17세기 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서학 서적에 담긴 과학 지식이 조선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맨날 유학만 알던 사람들이 서구과학이라는 걸 접했을 때 정말 기분이 어땠을까요. 암튼 이런 상황인데 19세기 중반까지는 '서양 의학'은 영향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도 말이에요! 논평을 남긴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할까요? 그렇죠. '왜 다른 건 관심있어 했으면서 서양 의학에는 관심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화제는 '조선인들이 서양 의학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 정도로 잡고 가면 되겠네요!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서국의(西國醫)」라는 글에서 아담 샬이 쓴 『주제군징(主制群徵)』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주제군징』에는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다.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心主知覺說)을 고수하였다.

는 줄 알았는데... 다음 문단을 보니 다른 얘기네요. 관심이 없었던 이유보다는 '그렇게 다들 관심이 없는 와중에도 서양 의학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가 봅니다. 그 사람들 중 하나가 이익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첫 문단을 읽고 생각한 화제가 반드시 맞다는 법은 없어요. 읽으면서 유연하게 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18세기'의 실학자 이익이라는 사람은 아담 샬의 주제군징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을 펼쳤대요. 일단 주제군징의 내용은 기계론적 인체관은 아니고, 기독교 전파를 위해 로마 시대의 생리설이나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을 실어놨다고 합니다. 이익은 이 우수성을 인정하고 뇌가 몸의 운동을 주관한다는 건 긍정했는데 (공통점) 심주지각설, 즉 지각 활동은 뇌가 아닌 심장이 주관한다고 했다고 하네요. (차이점) 사람이 나오면 주장 체크. 그리고 비교/대조되면 공통점/차이점 찾기. 기본 중의 기본이죠? 아 이런 공통점/차이점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달리는 겁니다.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서학에 대한 조정(朝廷)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홉슨의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하였다.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그는 **지각적·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자 이렇게 이익이 서양 의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도 <>와 같은 이유로 조선 사회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대요. 제가 제일 처음 생각했던 화제가 여기에 짧게 언급되네요. 아무튼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상태에서 '19세기' (제가 계속 시대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 지문이 시간순 서술인 것을 확실하기 위해서입니다.) 실학자 최한기는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홉슨의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에 대한 문제의식을 본격화했다고 합니다. 이전 유학자들이 도덕적 차원에서 논의한 것과는 달리(차이점) **지각적·생리적 기능에 주목했대요!** 말이 어렵지가 않으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하죠? 화제는 일단 서양 의학에 대한 인식 발전 과정? 정도가 되겠고, 앞으로는 최한기가 서양 의학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나올거라는 거죠! 최한기는 어떻게 서양 의학을 받아들였는지, 즉 조선에서 서양 의학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화제)가 이제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전체신론(全體新論)**』 등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 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체를 **'신기(神氣)'**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 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선교사인 홉슨은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이제 최한기를 정복해 봅시다. 최한기 인체관의 핵심은 '몸기계'였습니다. 이 개념을 쓰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보고 있었대요. 이 생각이 이제 서양 의학을 다룬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 '몸기계'라는 자발적인 운동을 하는 인체라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더 분명해진 거죠. 화제가 보이죠? 이 '신기'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신기가 뭐야? 라고 생각했는데, 정의를 해주질 않네요. 그래서 일단 쪽 읽어보니 '무한 소급'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의 원인, 원인의 원인의 원인, 원인의 원인의 원인의 원인의..... 이런 식으로 끝없이 인과가 이어지게, 이 문제를 끊을 최초의 원인을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종이 문제해결이 이 문장에 들어있다는 것이 보였다면 잘하셨습니다.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야 해서 (why) 무한 소급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what) 이걸 해결하기 위해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한다(how)는 거죠. 그래서 이 최초 원인이 '신기'라는 거네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죠? 그 최초 원인을 절대자라는 존재로 해결했던 홉슨과의 차이점도 보이구요. 지금까지 스무스합니다.

최한기는 『전체신론』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홉슨의 뇌주지각설(腦主知覺說)**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 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신론』의 견해를 부정하고, 대신 **'심'이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신기에서 출발하는 몸기계! 라는 개념을 서양 의학로부터 확실하게 정립한 최한기는 전체신론의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익처럼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건 아니고 심장이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을 받아들였네요. 이 공통점을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한 문장 한 문장에서의 공통점/차이점이 아닌 지문 전체에서의 공통점/차이점이에요!

그러나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이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 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심주지각설이랑은 좀 다르게 파악했네요. 이익이 좋아하던 심주지각설의 심은 심장이었는데, 최한기의 심은 신기였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익은 심장이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건데, 최한기는 신기가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밑에 밑줄 그어둔대로.. 밑줄 친 내용들이 하나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결국 '아 신기는 이런 식으로 지각 활동을 주관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쪽 읽어주시면 됩니다. 기억이 안나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 때 찾으러 오면 돼요!

최한기의 인체관은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 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 네.. 정말 너무 대단하군요!! 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문제 한 번 풀어봅시다.

16. ②

- ① 인체관 분화과정..? 서양과 대조..? 뭔가 그럴듯하면서도 화제를 다 비껴나가네요.
- ② 서학의 수용(화제)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구조)! 끝.
- ③ 문제점 열거, 역사적 시각 비판 다 나온 적 없습니다.
- ④ 절충? 그런거 없어요.
- ⑤ 우리가 일방적으로 서양에게 영향을 받았죠? 이것도 화제를 역행하는 선지네요.

17. ④

- ① 최한기는 원래부터 '몸기계'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양 의학'에 대한 흡습의 저서를 보고 이 생각이 더욱 공고해진거죠? 화제인 '서양 의학의 영향을 생각하며 글을 읽었다면 지문을 돌아가지 않고도 알 수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났다면 돌아가면 되는 거구요.
- ② 아담 살은 뇌, 이익은 심장! 둘의 차이점을 묻고 있죠? 나오는게 똑같아요.
- ③ 이게 바로 지문 전반적인 구조를 묻는 거죠. 이익과 흡습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적은 없었지만, 공통점을 생각했다면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뇌가 '신체의 동작'을 주관한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지각 활동을 누가 주관하느냐가 차이점이었죠.
- ④ 흡습은 맞는데, 아담 살은 기독교 전파하려고 기계론적 의학 이론은 소개하지 않았다고 했죠? 아담 살이 뭐하는 놈인지 체크했다면 틀릴 수가 없네요.
- ⑤ 주제군징과 전체신론은 모두 아담 살, 흡습이라는 사람들이 쓴 서구 의학 서적입니다. 당연히 기독교적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겠죠.

18. ③

- ③ 3문단의 < > 부분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화제였잖아요. 내용을 외우진 못했더라도 적어도 빠르게 돌아가서 풀어냈으면 됩니다. 그 부분을 보면 당대 의원들은 서양 의학에 관심이 없었다고 했어요. 한계 지적은 말도 안 됩니다.

19. ③

- 최한기의 입장을 찾아 봅시다. 몸기계와 신기만 기억하면 되겠죠!
- ㄱ. 심장이 지각의 주체다? 노우노우 신기가 지각의 주체라고 했죠.
- ㄴ. 신기가 통합되고 짱이시다! 오케이 이건 맞네요.
- ㄷ. 신기가 지각 작용 주관한다! 이것도 맞고
- ㄹ. 신기가 대소로 구분되어 있다? 이런 말은 적어도 지문 속의 최한기가 한 적은 없네요.

20. ②

- 일단 데카르트의 입장부터 정리해 봅시다. 물질/정신 구분하고, 기계적 운동 옹호하는 거. 이게 핵심이네요. 그리고 물질/정신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도 받는다!
- ① 데카르트의 정신은 물질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것인데, 신기는 몸을 구성하며 몸을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했죠.
- ② 최한기는 인간의 지각 활동을 비롯한 사고 작용은 신기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바로 답이네요. 최한기의 주장을 정확히 잡고, <보기>에 나오는 데카르트와의 비교가 핵심적이었습니다.
- ③ 정신은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과 구분되는 것이고, 신기는 리얼 장기는 아니라고 했으니 맞는 말이네요.
- ④ 그렇겠죠. 신기가 인간의 신체와 관련 없는 것이 아니니까요.
- ⑤ 데카르트도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으니, 흡습이나 최한기처럼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그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22~26]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 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이 경우,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방충망 얘기를 하면서 글이 시작됩니다. 뭔가 16수능 변론술 지문의 P와 E의 이야기로 시작한 것 같지 않아요? 그 지문 해설에서 제가 분명히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했었죠? 사례로 지문이 시작된다면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사례가 화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례는 어떤 화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꺼내왔을까요? 읽어보니 법률과 계약의 충돌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문장에서 아예 '문제가 발생한다고 대놓고 말해주고 있네요.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이 있고,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원인(why)이 뭔가요?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난다.' 그래서 문제(what)는?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는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그럼 이제 남은 how만 찾으러 가면 되겠네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법률과 계약 중 하나를 우선시하면 되겠조 뭐. 그러면 why가 사라지잖아요. 자 그럼 어떤 게 먼저인지 확인하러 가봅시다.

사법(私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 법규'라고 한다.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 법규이므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일단 '사법'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사법은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에 적용되는 법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뭐고 하니 한 마디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아서 정해라는 거네요. 그래서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나더라도 '계약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고 합니다. 위의 문제점이 해결된 거죠! 뭐야 이렇게 쉽게...? 라는 생각을 하며 계속 읽어보니, 이 사법은 '임의 법규'인데 이게 법이 있어도 당사자가 맘대로 계약할 수 있는 거래요. 애매하네요 그죠? 아무튼 위의 how인 '우선 적용할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임의 법규의 경우 뭘 먼저 우선시한다? 계약이 있으면 계약을, 없으면 법률을!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속 법규'라고 한다. 공인 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 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 계약의 경우 공인 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給付)를 할 의무가 인정되어, 공인 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약이나 법률을 우선시하면 되는데, 계약이 법률과 어긋나면 계약을 우선시하는게 아니라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대요. 오 도대체 뭘 하면 이렇게 될까요? 음.. 그건 딱히 말해주지는 않네요. 여기서 저처럼 답답함을 느껴야 정상이에요. 평가원이 정의를 안 해주잖아요!! 공인 중개사가 도대체 뭘 잘못된건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암튼 공인 중개사처럼 저런 잘못을 하면 벌금이라는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계약 자체는 유효라서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를 할 의무가 인정된대요. 어렵지 않죠? 내용이 너무 쉬워서 지문이 쪽쪽 읽힙니다. 그냥 포인트만 제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계약이 법을 어기면? 벌금 같은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때도 계약은 유효다!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강행 법규'라고 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은 '부당 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 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 법규이다. 따라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다만 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 자금을 건넸다면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법적 불이익만 주는게 아니라 아예 계약의 효력 자체도 부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강행 법규'인데, 이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급부를 요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만약 급부를 이행해서 재산적 이익이 생기면 이건 부당 이득이라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건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의 정의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의 정의를 체크 해주시면서 읽으면 됩니다. 쉽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계약이 법률과 어긋날 경우 3가지 정도의 단계로 나뉘네요. 계약이 우선하는 경우 (임의 법규) / 법적 불이익만 주는 경우 (단속 법규) / 법적 불이익 + 계약 무효까지 인정되는 경우 (강행 법규)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서 비교/대조되고 있는 것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모두 우리가 애타게 찾던 how라는 것도요! 뭐가 우선시되는지의 문제도 해결했고, 법적 불이익이 없는지 하는 문제도 해결했잖아요!

그러나 강행 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끝인줄 알았는데 한 단계 더 있네요. 이번엔 강행 법규 상태에서 아예 반환도 안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강행 법규의 경우에도 계약은 무효지만 급부에 의한 부당 이익은 모두 반환받을 수 있었는데,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은 이 반환조차 안 된다! 사법계의 끝판왕이네요.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이유를 말해주며 '비례 원칙'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알려주네요. 이 정의 체크하고,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네요.

22. ③

① 임의 법규 -> 단속 법규 -> 강행 법규 -> 강행 법규 업그레이드 이렇게 점 점 강도가 심해지는 거 체크하셨죠? 임의 법규는 계약을 우선시 할 때입니다.

② 계약 자유의 원칙의 정의를 봐야겠네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은 당사자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그럼 단속 법규보다 계약제약의 정도가 낮은 임의 법규가 이 원칙에 더 부합하겠죠.

③ 비례 원칙의 정의는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하는 겁니다. 단속 법규에서 벌금 물리는 이유는 벌금을 물리는게 필요해서지, 비례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서가 아니겠죠. 애초에 비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사법에서 모두 적용되는 원칙이러는데.

④ 그렇죠 이게 비례 원칙이죠. 단속 법규로 필요한 만큼의 제한을 해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을 강행 법규로 개입하면 오버하는게 되고, 비례 원칙을 깨버린거죠.

⑤ 강행 법규냐 강행 법규 업그레이드냐는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반사회적이나 아니냐가 결정한다고 했죠? 비교/대조의 기본 포인트인 공통점/차이점을 묻고 있네요.

23. ②

- 일단 기본적으로 [A]는 임의 법규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 정도는 인지하고 들어가셨어야 합니다.

ㄱ. 관련 계약이 없으면 법규에 따라 건물주가 수선 의무가 있고, 임의 법규니까 법적 불이익은 당연히 없겠죠.

ㄴ. ㄱ과 똑같은 논리에 의해 틀린 내용이죠.

ㄷ. 계약이 있으면 계약을 따르게 해주는게 임의 법규죠? 그리고 법적 불이익은 당연히 없겠네요.

ㄹ. 계약을 따르게 하는 건 좋은데, 임의 법규인데 법적 불이익을 주면 안 되겠네요.

이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원이 굉장히 배려를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속/강행까지 섞으면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었던 문제였어요. 맞혔다고 좋아하지 말고 얼마나 완벽하게 풀었는지, 그리고 지문을 얼마나 잘 읽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 ①

① 1번을 보자마자 골랐어야 합니다. 단속과 강행의 공통점이잖아요.

② 급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건? 강행이죠.

③ 이건 강행 업그레이드버전.

④ 이것도 강행만이네요. 애초에 각 법규의 정의와 특징을 정확하게 잡아놨으면 어려울게 없는 비교/대조 지문이에요.

⑤ 이건 이 지문의 대전제를 위반하는거죠. 이 지문 자체가 계약 자유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사법에 대해 다루고 있잖아요.

25. ③

- <보기>를 정리해 봅시다. A와 B는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이미 1년간 급부를 한 상태네요. 하지만 이게 농지법 위반입니다. 왜 위반인지 알려주면 좋을텐데 - 아무튼 위반이 된 순간 머릿 속엔 4가지 경우의 수가 떠올라야 합니다. 뭘 지는 알겠죠?

계속 읽어보니 벌금, 즉 법적 불이익을 받았고, 급부도 무효고, 반환도 해야하는 그냥 강행 법규네요. 상황은 어렵지 않아요. 바로 문제 풀어봅시다.

① 사법의 정의가 개인과 개인 간의 재산에 대한 법이에요. 이것도 당연히 사법으로 다루어야죠. 그리고 만약 이 선지가 답이라면 지문을 잘못 쓴 겁니다. 화제가 사법에 대한 내용인데..

② 강행 법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적 불이익 + 계약 무효로 이걸 답으로 고르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사실 저도 첨엔 아무 생각없이 여기 손이 갔죠 -) 법적 불이익 다음이 계약 무효입니다. 계약이 무효라서 벌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벌금도 매기고 계약도 무효라고 하는게 핵심입니다. 단계가 계약 우선 -> 법적 불이익 -> +계약 무효라는거 잡으셨으면 틀릴 수가 없어요.

③ 비례 원칙을 적용하려면 필요한 만큼 다 조져야겠죠? 벌금, 즉 법적 불이익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계약 무효까지 조져서 강행 법규를 적용했겠죠. <보기>의 상황을 잡고, 비례 원칙의 정의를 체크했다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④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이라면 반환을 금지해야겠죠. 오히려 반환하라고 하고 있으니 이건 아니네요.

⑤ 강행 법규에서 급부 의무를 부정하고 반환을 명령하는 이유는 그 이득이 부당 이득이기 때문이죠.

이번 시험에서는 문제에서 엄청난 사고를 요구하기보다는 모두 완벽한 지문 독해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9평, 수능까지 이 기조가 이어지지라는 법은 없지만, 지문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은 언제든지 중요한 능력이니 많이 연습해둬시다.

\*문학은 지문해설 없이 진행합니다. 선지 판단이 더 중요한 영역이기에..

[27~31]

27. ①

① 공통점을 묻는 문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거시적인 선지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인간의 삶은 당연히 나올 것이고, 공간 (휴전선,우포늪, 오심암이 있는 곳)의 의미도 나온다고 할 수 있으니 애가 답이네요.

② 갈등과 대립이 짱 많죠?

③ 역사적 상황 직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 의식. 모두 (가)에는 어울리는데 (나)(다)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④ (나)(다)는 괜찮은데 (가)에 예찬이라는 반응은 나오질 않았네요.

⑤ 너무 총체적으로 개소리네요.

28. ③

① (가)에 설의적 표현 짱 많이 나오죠? 안타까움은 (가)시의 대표적인 반응이구요.

② 왁새 울음이 꽃발을 질러놓고 있으니 청각의 시각화가 허용이 되네요.

③ 시간의 흐름이 있었다면 당연히 체크가 됐을 거고 (상황이니까) 시선의 이동이 있었다면 장면이 계속 변화하겠죠. 시간 흐름 없었고, 장면 변화보다는 그냥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었으니 애가 개소리네요.

④ (가)는 아예 수미상관의 구조가 쓰였고, (나)는 소리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⑤ 자연물이 나오기만 하면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선지인데, 꽃, 왁새 등의 자연물에게 화자의 반응을 투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29. ②

① 천동 같은 화산이 신뢰를 잃은 상황과 불안한 현실이라는 건 허용할 수 있는데, 검은 절경이 아름다움을 잃은 풍경이라는 건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개소리죠?

②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 곳이니 하나로 이어진 세계를 허용할 수 있고, '높은 하늘 아래'는 티끌을 품은 듯한게 없는, 즉 흠결 없는 세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별 거 아니에요. 시를 읽고, 해석을 보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③ 삶의 의지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반응이고, (다)의 화자가 정든 곳에서 떠났다는 근거도 없으니 개소리네요.

④ 징그러운 바람이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모진 상황인 건 허용이 되는데, 미친 바람을 먼지를 품고 있는데 소중한다고 보기는 힘들죠.

⑤ 순응, 회의라는 반응은 나온 적이 없으니 허용하기 힘듭니다.

30. ⑤

① 왁새 울음소리가 우포늪의 꽃발을 어케어케한다고 했으니 허용할 수 있네요.

② 달빛 같은 슬픔을 통해 비애를 허용할 수 있네요.

③ 정서, 즉 반응이야 당연히 드러나는거고, 소리꾼이 절창을 우포늪에서 발견했다고 했으니 당연히 허용이 돼요.

④ 이게 좀 어려웠을텐데, 별 거 아닙니다. 토평마을이라는 현실적 공간이 나온 건 알겠는데, 상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헛갈렸구요. 그 때 든 생각은, '상상이면 틀렸나? 그건 아니네.'였어요. 상상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 허용해야죠 ㅎㅎ 그게 문학이잖아요.

⑤ 근데 이걸 대비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완창 한 판 잘 끝냈다는 소리꾼이 선화하는 왁새와 함께 나오고 있고, 둘이 다르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당신은 뭘 보고 대비를 허용했나요? 문학은 이렇게 뇌피셜이 아닌 지문의 표면적인 내용으로 조지는 겁니다. 작품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게 아니에요.

31. ④

①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내기 위해서 누런 단풍, 푸른 하늘빛 등의 감각적인 문제를 활용하고 있네요. 쫄지 말고 덤비세요. 다 내용일치예요.

② 실제로 예술의 극치인 자연과 장하지도 아니한 인간의 예술을 대비하고 있고, 장하지도 아니한 인간의 예술이라고 했으니 비판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③ 겸손, 순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바뀌고 있으니 새로운 의미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④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보였다면 교훈을 허용할 수 있을텐데, 제대로 읽어야죠.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자연이 티끌 하나 없다고 했죠. 상세한 내용일치의 전형이에요. 지문의 내용과 다르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⑤ 네 먼지 낀 옷에서 부끄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니 반성적 태도를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32~34]

- 만약 서경별곡 내용을 아예 모르셨다면 꼭 필수고전시가에 대해 공부하도록 합시다. 물론 이번 시험에서는 만분가를 가지고 선지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평가원은 필수고전시가 내용을 안다는 가정하에 선지를 불친절하게 출제한 전력이 있는 집단입니다. 꼭 준비합시다.

32. ④

① 네 서울은 화자가 머무르는 공간이 맞습니다. 몰랐다고요? 이제부터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몰랐더라도 건덕궁은 화자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니 허용할 수 없네요.

② 질삼뵈는 알아두세요. 질삼뵈를 버리면서 까지도 화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피하고 싶은 대상은 약간 애매한데, 빈 낙대는 그냥 화자가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회피하고 싶은 대상은 절대 아니네요.

③ 우러곰과 슬피 우러 모두 화자의 슬퍼하는 반응을 의미하네요. 임의 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④ 둘 다 화자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으니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고전 시가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매우 단순한 상황/반응만 잡을 수 있으면 됩니다.

⑤ 미래 상황에 대한 의혹은 허용하기 힘든 반응이네요.

33. ⑤

① 학이 되어 솟아 오르는 건 상승 이미지라고 볼 수 있죠.

② 네.. 반응 자체가.. 네...

③ 네.. 이것도 당연히..

④ 한이 뿌리가 되고 눈물이 가지가 되어 매화가 된다고 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⑤ 임과 재회한 순간? 이거 완전 화자의 상황을 거스르는 선지네요.

34. ②

① <제2연> 부분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 깨져도 긴은 그치지않는다는 내용인데 이게 <보기>에서도 나오니 허용할 수 있네요.

② 예..? 이게 무슨..? 문학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답을 꼭 고를 수 있도록 줍니다. 신과 붉은 마음이 바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네요.

③ 지금부터는 그냥 주는 선지입니다. 받아드세요. 둘 다 긴, 끈 좋아하니까 허용할 수 있네요.

④ 동일한 모티프, 서로 다른 작품.. 꼬덕꼬덕..

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의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한다.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일단 검사용 키트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건강 상태 진단, 혈흔 조사 등에 사용이 되는데 싸고 쉽고 빠르게 하는 가성비 갑 키트를 제작하는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 하기 위해서는? 항원-항체 반응이라는 걸 활용해서 하는데, 일단 정의는 당연히 체크가 되시겠죠? 이 반응을 가지고 만든 LFIA를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대요. 다양한? 여러 가지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고, 그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LFIA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LFIA 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①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②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금-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등의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내는데, 이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그중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고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다. ①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②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난다.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단에서 무너지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화제, LFIA 키트의 종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게 중요하네요.. 일단 읽어봅시다.

LFIA 키트의 정의를 체크해보니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하는 거네요. 모양과 구조는 저렇습니다. 자주 나오는 정보전달방식이죠? 구조가 이렇고, 이 구조는 이런 역할, 저 구조는 저런 역할이란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가볍게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외우거나 빠삭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된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순서가 있다는 걸 인지하시면 좀 더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위에 제가 해둔 것처럼 1,2 정도로 순서를 끊어두시면 좋겠네요. 암튼 저런 순서로 구조들이 작동을 하는구나~ 생각 하시면서 계속 읽어봅시다.

결합 패드에는 복합체가 있는데, 이 복합체는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지고,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읽기만 하는게 아니라, 평가원이 쓰는 매우 논리적인 지문에는 결국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존재한다는 걸 아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보는 시료 패드-흡수 패드에 대한 정보, 결합 패드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가 흡수 패드까지 가는 경로,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와 복합체를 이루는 표지 물질의 정의까지. 그럼 다음은? 그렇죠 반응막에 대한 정보겠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생각해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읽고, 나중에 돌아올 때도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반응막이 무엇이나면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것이고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된 것이네요.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이 검사선, 다른 가닥이 표준선이라고 합니다. 반응막에 대해서도 대충 정리가 됐네요.

이 정보들을 모두 외울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포인트만 이해하고, 정보 전달방식을 생각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어차피 문제풀 때 이거 물어보면 돌아오면 되잖아요.

LFIA 키트는 주로 직접 방식 또는 경쟁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①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이 이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②이후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한다. 한편 **경쟁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이다. 만약 ①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 경쟁한다. ②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이용하고, **경쟁 방식**은 항생 물질처럼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이용한다.

지금까지는 LFIA 키트의 구조와 작동 방식에 대해서 다뤘는데, 드디어 우리가 궁금해하던 종류가 나왔네요!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네요. 어떻게 다른지 한 번 생각하며 가 봅시다. 일단 직접 방식의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래요. 아 1문단에 나왔던 항원-항체 반응 그 얘기와 관련있나봐요! 이 생각을 해내면 베리베리굿입니다. 아무튼 그런게 특정 물질인데,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이 이 특정 물질의 항체와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한다고 합니다. 이 순서. 일단 끊어두면 이해하기 편하겠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검사선 색깔이 변하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는 거죠. 어렵지 않네요.

그런데! 경쟁 방식의 특정 물질은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래요. 그래서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둘 다 검사선 항체랑 결합하려 싸운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인도에 낙오된 두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고기를 발견하고 뛰어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하다 보니 오히려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큰 차이점이네요. 직접 방식은 검사선이 발색되면 목표 성분이 있는 거고, 경쟁 방식은 발색되지 않으면 목표 성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단백질 등에 사용하고, 경쟁 방식은 항생 물질처럼 작은 경우에 사용한다는 차이점도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이걸 과학 지문이 아니라 그냥 비교/대조 지문인거예요.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면 신나게 읽었을 겁니다. 평가원 지문은 절대로 정보를 그냥 나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보를 주는 방식이나 구조가 있어요. 그걸 캐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정보를 조직화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성도 중요하다.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키트를 이용해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 **진양성**,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다면 **위양성**이라고 한다. 반대로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면 **음성**이라고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다면 **진음성**, 목표 성분이 있다면 **위음성**이라고 한다. <현실에서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다.>

자 여기도 계속 비교/대조입니다. 처음에 강조했던 휴대성, 신속성 외에 정확성도 중요하다는데 (당연한 소리..) 이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 저렇게 한 대요.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양성, 진양성, 위양성, 음성, 진음성, 위음성. 이 개념들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통점/차이점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성과 음성을 나누는 기준은 있다/없다고 '판정'한다는 것이고, 진이나 위냐를 나누는 기준은 '실제로' 있냐/없냐라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조금 헛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 체크해놓고 문제에서 물어보면 돌아옵니다.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정확도**란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다.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뉜다.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황에 따라 민감도나 특이도를 고려하여 키트를 선택해야 한다.

아무튼 이런 양성/음성을 잘 판단하는지를 확인하는게 정확도인데, 이 정확도는 또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뉜다고 합니다. 끝까지 비교/대조네요. 개뻥치지만 그냥 똑같이 읽어줍니다. 공통점은? 둘 다 정확도다. 차이점은? 정의 그 자체죠 뭐. 민감도 = 양성 판정 / 목표 성분 존재, 특이도 = 음성 판정 / 목표 성분 no존재. 어렵지 않죠?

결국 이 지문은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 신속성, 정확성이 중요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이리이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요런 종류가 있으며, 정확도를 구성하는 이런 개념들이 있다! 정도 생각하고 문제 풀러 가주시면 됩니다. 사실 그리 어려운 지문은 아니네요.

### 35. ③

① 시료, 흡수 물어보면? 바로 2문단 가야죠. 가서 그들을 설명했던 과정 끊어둔 거 보니까 시료 패드에서 시료 흡수하고, 여분의 시료는 흡수 패드에서 흡수하네요.

② LFIA 키트의 종류인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 모두 항체를 활용하고 있으니 맞는 선지네요.

③ 이거 좀 어려운데, 필연적으로 가봅시다. 정상적인 키트에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요?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하지 못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목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면? 반드시 표준선이 발색되지 않나요? 조금 애매하죠? 그럼 다시 필연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애초에 검사선 / 표준선은 뭐 하는 놈들인가요? 좀만 위로 가보니, 검사선 / 표준선은 모두 반응막의 띠들입니다. 그럼 반응막은 뭐 하는 놈이죠? 바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게 목표라는 거죠. (정의)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검사선 / 표준선은 모두 목표 성분을 검출하기 위한 선들이네요. 그럼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즉 목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면? 표준선은 작동할 이유가 없죠. 목표를 상실해버렸으니까요.

조금 이해되시나요? 뭐 대충 목표 성분 유무를 모르면 표준선도 쓸모 없겠지~ 라고 해도 되지만, 조금 필연적이고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④ 표지 물질의 정의가 색깔을 내서 시각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⑤ 위양성의 정의가 이거죠. 판정은 양성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위양성이다.

### 36. ①

-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안 돌아가고 푸는게 베스트이지만, 바로 옆으로 왔다갔다할 준비를 하셔야겠죠.

① 직접 방식의 경우에는 시료의 목표 성분이 특정 물질의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을 하고 이후 고정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경쟁 방식은 특정 물질의 목표 성분과 경쟁하다가 이겨야만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할 수 있네요. 그 전에 결합은 꿈도 못 꿩요. 바로 답이네요. 두 방식의 작동 방식을 이해했다면 매우 쉽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② 직접 방식도 결국엔 검사선 항체랑 결합하죠? 특정 물질 항체랑 먼저 결합할 뿐이지!

③ 직접 방식이든 경쟁 방식이든 일단 LFIA 키트는 검사선이 먼저 발색되고 그걸 본 표준선이 발색되는 겁니다! 매커니즘을 이해 못 하면 문제 제대로 못 풀어요.

④ 반응막에 아무런 반응선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정상적인게 아니죠. 왜? 정상적인 반응이 나타난거면 표준선이 발색된 상태라면서요. 결국 경쟁 방식을 쓰든 뭘 쓰든간에 결국 정상적으로 했다면 표준선은 발색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선도 반응선의 일종이기에 틀린 선지죠. 매우 어려운 선지였는데, 매우 단순하게 해결됩니다.

⑤ 일단 직접 방식부터 생각해 봅시다. 시료의 목표성분이란 표지 물질이 일차적으로 항원-항체 반응을 하고, 그 뒤 검사선의 항체랑 항원-항체 반응 하니까 맞는데, 경쟁 방식의 경우 시료랑 표지 물질이랑 서로 경쟁하지, 항원-항체 반응을 하지는 않죠? 검사선의 항체와 만나는 거죠.

37. ④

④ 대단한 낚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A인 경우가 '적을수록' 민감도가 높아지고, B인 경우가 '많을수록' 특이도가 높아진다고요. 그럼 일단 민감도, 특이도의 정의부터 확인해 봅시다. 민감도는 '양성 판정 / 실제 존재하는 경우'이고, 특이도는 '음성 판정 /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럼 민감도를 높이려면 뭘 해야할지 필연적으로 생각해 봐야겠네요. 민감도라는게 실제 존재하는데 있다고 하는 비율이니까, 이것 높이려면 줄어들어야 하는 건 뭔가요? 그렇죠. 실제 존재하는데 없다고 하는 비율이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있다고 하는 비율을 줄이면 되겠죠. 전자는 위음성, 후자는 위양성에 해당하네요. 이 둘 중 하나를 줄이면 됩니다.

자 다음은 특이도를 높이려면 뭘가 높아져야 하나요? 특이도라는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없다고 하는 비율이니, 그 비율 자체를 높이면 되겠네요. 이걸 뭘 높이나요? 그렇죠 진음성이죠.

그럼 답은? 위음성-진음성이나 위양성-진음성이네요. 후자는 선지에 없으니 답은 4번. 조금 까다롭긴 한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할 만하죠?

38. ②

- 일단 <보기>부터 봅시다. <보기>의 살모넬라균은.. 음... 뭐 대단한 정보는 없어보여요. 여기서 대단한 정보의 기준은 지문에 있는 말을 끌어낼 수 있는 정도? 그냥 뭐 정확도 정도는 보이는데 오히려 낮추라하니.. 세균이라는 것 정도는 써먹을 수 있겠네요. 세균은 직접 방식에서 주로 사용하잖아요.

①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가 있으니 LFIA 방식으로 살모넬라균 전용 키트를 만들었겠죠.

② 오우 노노 세균은 직접 방식이라니까요! 직접 방식은 표지 물질에 항체를 붙이지 목표 성분(살모넬라균)을 붙이지는 않죠. 바로 정답. 정말 별 거 없는 문제예요. 세균만 잡으면 끝나는..

③ 이건 좀 치사한 문젠데, LFIA 키트의 정의를 보면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는 ~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액체로 시료를 만들어야겠죠. 물론 이건 기억이 안 나는게 정상이고, 저처럼 LFIA 키트의 정의를 찾으러 와서 확인해야하는 부분입니다.

④ 오 이걸 제가 못 봤던 부분인데, <보기>를 다시 보니 오염이 의심되는 시료부터 건져낸다고 했습니다. 그럼 진짜로 오염이 의심되는 시료를 판별하는게 중요하니까, 살모넬라균 자체를 건져내는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없다고 판정하는 것보다는 있다고 판정하는게 중요할 거고, 이와 관련된 건 민감도!

⑤ 애초에 정확도가 완벽한 키트는 없다고 했으니 그럴 수 있죠.

<보기>문제라고 쫓겨 없었어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중요한 건 지문의 화제. LFIA 키트의 종류!를 제대로 잡고 비교하며 읽었냐가 포인트였어요.

(와 싸드타어 비문학 끝났다 죽겠다)

[39~42] : 개쉬워요. 틀렸으면 반성하시고 기출문제 좀 풀어보세요.

39. ③

- ① 돈 얘기는 나오지 않죠.
- ② 일관되게 ??? 하고 있죠.
- ③ '기가 질려', '실성한' 인물의 심리를 체크했다면 바로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 ④ 참옹고집은 아무말 못 하고 씩씩 거리기만 하고 있어요.
- ⑤ 외양 묘사가 있었다면 놓쳤을 우리가 아니에요.

40. ③

- ① 그러니까 이런 말 하고 앉았죠.
- ② 좋아하는 사람한테 저런 생각을 품지는 않겠죠..?
- ③ 짚옹고집은 이미 참옹고집이 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수상히 여길 리가 없죠. 심리의 근거에 신경썼으면 바로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 ④ 그러고 있네요..
- ⑤ 그러고 있네요... 진짜 틀렸으면 안 돼요.

41. ①

- ① 참옹고집이 가족에게 소외되어..?? 진짜 가족에게 소외되었으면 오히려 쫓겨났을 때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형세와 처자를 뺏긴다는 표현도 안 썼겠죠. 절대 허용할 수 없네요.
- ② 박하게 대했다 = 가난한 이들 외면. 허용할 수 있네요.
- ③ 구차한 사람 구제 = 가난한 이들 구제. 허용할 수 있구요.
- ④ 돈 막 줄 수 있다 = 엄청 부자. 허용할 수 있네요.
- ⑤ 전전결식 = 공동체 소외, 고통. 허용할 수 있네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너무 쉬워요. 차마 틀릴 수가 없을 만큼

42. ④

- ① 그렇네요..
- ② 네.. 그렇네요... 아니.. 어떻게 해설하지..
- ③ 부모 박대하고 모친 구박하는게 인륜적 행위는 아니죠..?
- ④ 이건 아니죠. 왜? <보기>에서야 참옹고집이 용서를 비는데, 지문에선 지 잘못 모르고 부들부들 하다가 짚으로 변한 거 보고 개과천선 하잖아요. 지문 내용과 다르면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허수아비로 변하고 홀연 사라지는게 신이한 사건인 건 인정하죠? 아 물론 길 가다가 가끔 홀연 사라져버리는 친구들이 있긴 합니다만.. 도대체 맨 날 어딜 갔다 오는건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43~45] : 개쉬워요2. 틀렸으면 반성하시고 기출문제 좀 풀어보세요. 특히 45번을 틀렸다면 평소 문학 선지를 판단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43. ①

- ① 지문을 읽었다면 손이 갈 수밖에 없는 선지예요. 대화가 거의 없이 나의 생각을 쪽 나열할 뿐이죠.
- ② 삽화식 구성이 되려면 지문을 영화라고 가정했을 때 아예 씬이 변해야해요. 이 지문에서 중간중간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냥 나의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잠깐씩 등장할 뿐이죠.
- ③ 시점 자체가 1인칭이기 때문에 외부의 서술자는 허용하기 힘드네요.
- ④ 말도 안 되네요. 주구장창 나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 ⑤ 반감? 절대 허용할 수 없네요.

44. ⑤

- ① 뭐 서로 성공을 했니 안 했니, 확신하니 안 하니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게 아니다 보니 지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적도 없어요.
- ② 전화 받고 오히려 더 갈등하고 있죠. 과거와 현재 사이의 갈등.
- ③ 단호히 거절하지 못 해서 이런 이야기가 생긴 거죠.
- ④ 내가 은자를 도도하게 여긴다는 심리 보신 분 계시면 쪽지 부탁드립니다.
- ⑤ 이거죠. 여기서 갈등의 지점이 생기는 거죠. 은자는 현재의 모습. 나는 과거의 모습. 은자는 현재의 모습으로 보고 싶어하고, 나는 과거의 모습으로 남겨두고 싶어하고. 소설 내용을 이해했다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45. ②

- 이 문제는 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했던 생각 그대로를 재현하기 위해 두 번 해설하겠습니다.

(지문 안 돌아가고 선지만 읽으며)

- ① 내리막길인데 기어 오르니 양면성 허용할 수 있네요.
- ② 몸으로 밀고 가야 하는데 탐구하고 사색하는, 머리를 쓰고 있으니 양면성 허용할 수 있네요.
- ③ 맨날 가면서도 다신 못 갈거라고 하고 있으니 양면성 허용할 수 있네요.
- ④ 변한 오빠, 그대로인 오빠 모두 있으니 양면성 허용할 수 있네요.
- ⑤ 만나고 싶지 않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니 양면성 허용할 수 있네요.

??????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텐데, 이럴 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일단 <보기>에서 놓친 정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지문 뿐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다 확인했다고 가정하고, 정답인 2번 선지만 보겠습니다.

② 지문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 확인해보니 ‘그들에게 있어 인생이란 탐구하고 사색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몸으로 밀어 가며 안간힘으로 두들겨야 하는 굳건한 쇠문이었다.’가 원문이네요. 이제 보니, 그들은 몸으로 밀어야만 하는 쇠문을 탐구한게 아니라 탐구해야만 하는 인생을 몸으로 밀고 있던 거네요. 와.. 그러니까 양면성은 맞는데, 지문 내용과 선지 내용이 반대라서 틀린 겁니다. 이번 시험 문학이 유독 이 ‘상세한 내용일치’가 많았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여지없이 문학이 어려웠다고 했죠. 기억하세요. 문학을 변별력 있게 내는 방법은 상세한 내용일치 말고는 ‘없습니다.’ 6평에서 문학을 좀 틀렸다고 갑자기 문학 해석론, ebs 총정리 이런 짓을 하지는 마세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무리 멘트> :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할 건 여러분의 연습량과 실력뿐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